

금남로에서



정 후 식
논설실장·이사

인도차이나의 찻줄 매콩강이 관통하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Phnom Penh). 이곳에서 바다 같은 호수 톤레사프(Tonle Sap)를 따라 북서쪽으로 400km를 달리면 만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사원 앙코르 와트(Angkor Wat)에 이르기까지. 거리 곳곳에는 새하얀 꽃들이 곱고도 처연하게 피어 있다. 현지인들은 이 꽃들을 '프가 쨌빠이'라고 부르며 죽은 이의 영혼을 달래 준다고 믿는다.

앙코르 와트가 크메르 제국의 영광을 보여 주는 캄보디아의 별명이(양지)라면 킬링 필드(Killing Fields)는 그늘이 자 눈물이다. 1975년부터 4년간 폴 포트의 급진 공산주의 정권 크메르 루주가 갖 난이년부터 노인애 이르기까지 양민 200만 명을 무차별 학살한 비극의 현장이다. 당시 인구의 4분의 1이 이유도 모른 채 살육당했다.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방기의 역사'를 보여 주는 학살 현장은 전국에 800여 곳이나 된다. 4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진상 규명이나 단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굴곡진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33년째 권좌를 지키고 있는 훈센 총리를 포함해 크메르 루즈 정권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여태껏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훈센은 제1 야당을 강제 해산하고도 엇그제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했다. 성격과 양상

'킬링 필드'에 스미는 광주 정신

은 다르지만 여전히 진실이 조작과 왜곡의 벽에 갇혀 있는 5·18 민주화운동을 떠올리면서 동병상련을 느낀다.

아픈 역사를 웅변하는 듯 대지의 대부분이 황태이고 갈밭과 호수도 붉은 빛인 캄보디아의 상처 받은 주민들을 어루만지며 희망을 심는 사람들이 있다. 프놈펜에서 66km 떨어진 캄pong스페우(Kampong Speu) 주(州)에 위치한 캄보디아 광주진료소가 치유의 베이스캠프다.

광주진료소는 지난 2014년 이주 여성 지원 단체인 (사)아시아희망나무(이사장 서정성·대표 정승욱)와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 의약 5단체의 지원으로 설립됐다. 광주일보도 구상 단계부터 성금 모금, 봉사 활동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힘을 보탰다. 300여 명의 부지에 80평 규모의 단층 건물로 네 개의 진료실과 엑스레이(X-ray) 촬영실, 수술실, 회복실, 약국을 갖추고 상주 의료진을 두고 있다.

해외 의료 봉사 벌써 10년

이곳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틀간 개월 4주된 맞이 봉사 활동이 펼쳐졌다. 희망나무가 주관한 행사에는 52명의 광주 지역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다. 무더위에도 아침 일찍부터 수백 명의 주민이 찾아와 그늘막 아래서 진료 순서를 기다렸다. 영아부터 학생이나 노인애 이르기까지 대기 행렬은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다.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은 안과와 치과였다. 안과의 경우 안경을 만들어 주는 장비까지 갖춰 호응이 뜨거웠다. 즉석에서 시력을 되찾아 주니 개인

이나 다름없다. 진료소까지 올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해 오지 마을까지 찾아가는 이동 진료도 병행했다. 한국에서 가져간 옷과 신발, 비타민과 구충제 등을 나눠 줄기도 했다. 치료를 마친 주민들은 '어끈 쨌판'(너무 고마워요)을 연발했다.

진료소 밖에서는 김종경 조선대 미술대학 교수와 희망나무 이사들, 가족과 함께 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빗바랜 건물을 도색하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광주대 사회복지전문 대학원생 8명은 현지 초등학교들과 종이 접기, 그림 그리기를 함께 하며 문화 나눔을 펼쳤다. 진료가 끝난 뒤에는 방역과 청소까지 맡김하게 마쳤다.

놀라운 것은 저마다 자비를 들여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의 태도였다. 서 이사장과 전성현 아이퍼스트 아동병원장, 박석레이(X-ray) 촬영실, 수술실, 회복실, 약국을 갖추고 상주 의료진을 두고 있다. 이번 의료 봉사는 서른다섯 번째다. 개월 이래 4년간 매년 여덟 차례 이상 찾은 것이다. JB금융그룹과 남도학숙, 조선대병원,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청소년 등의 단체 봉사도 줄을 잇고 있다. 개인 초기 현지 주민들이 품었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이들의 진정성에 눈 녹듯이 사라졌다. 지금까지 5만여 명이 진료를 받았고, 덕분에 개월 당시 2%에 그쳤던 지역 주민의 의료 혜택률이 25%

까지 상승했다고 한다. 희망나무는 광주진료소 인근에 문화센터와 게스트하우스 기공식도 가졌다. 올 하반기 완공 예정인 문화센터에는 한글 교실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콘텐츠를 구축해 '한류'의 보급자리로 삼을 작정이다.

나눔과 연대 지구촌으로

광주 의료진들이 5·18 '광주 정신'을 알리는 해외 나눔에 체계적으로 나선 것은 올해로 10년쯤 된다. 지난 2008년 창립된 희망나무가 선도적 역할을 했다. 이후 광주국제협력단, 세상을 이어가는 끈, (사)선한영향력, 선한의료인들,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의 기관·단체가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네팔, 키르기스스탄, 북한 등지에서 봉사를 펼쳐 왔다. 태풍과 지진 등 대형 재난 때는 긴급 구호 팀도 파견했다.

광주시의 지원으로 지난해에는 네팔에 두 번째 광주진료소가, 올 3월엔 몽골에 이동 광주진료소가 개설돼 몽골의 취약한 현지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진들은 나눔과 연대, 인권과 평화의 광주 정신을 지구촌 곳곳에 심고 있다. 5·18 세계화에 밀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킬링 필드에 개설된 광주진료소가 현지 주민들의 '힐링 캠프'로 자리잡은 것처럼, 남북 관계 개선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대북 의료 지원이 재개돼 '광주 인술'이 남북 화해 협력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who@kwangju.co.kr

은펜칼럼



김 창 균
광주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염이 연일 기승이다. 우리 선조들은 땀방 아래서 사흘 동안 서마지기 피사리만 하면 더위를 모른다고 이열치열(以熱治熱)을 강조했지만, 닭과 돼지 등 가축과 양식 어류 폐사가 속출하고 온열 환자가 급증하는 울여를 더위 아래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황당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지구 온난화가 초래할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는 과학적 사실을 중심으로 많은 보고서가 존재한다. 이를 떠나서 가뭄으로 인한 식량 생산 불안정, 물 부족, 이상기온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겨울에도 이상 한파로 전국이 난리였다.

겨울은 얼어붙고 여름은 한중막인 온난화의 역설을 연이어 경험하고 있는 셈

폭염에 대한 성찰

이다. 산업화 이래 인간의 욕망이 자초한 지구 온난화의 여파니, 그동안 자연을 극복의 대상이자 인류 발전의 수단으로만 여겨왔던 인간에게 내린 자연의 준엄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무섭고 섬뜩한 이야기지만, 프랑스에는 개구리를 주재료로 한 요리가 있다고 한다. 처음부터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지 않고 15℃ 정도의 물에 개구리를 넣는다. 그리고 온도를 아주 조금씩만 올리면, 개구리는 자신의 몸이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대로 죽어서 다른 재료들과 섞이면서 요리로 변하게 된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든 속담처럼, 현실에 안주하며 변화하는 흐름을 감지하지 못할 경우 큰 화를 입을 수 있을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삶은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이다.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자연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큰 화를 입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스스로 냄비에 열을 가하면서도 불을 끄거나 냄비에서 벗어날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로만 여겨왔던 인간에게 내린 자연의 준엄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지구 온난화뿐이겠는가. 환경 재앙을 유발할 수 있는 문명의 이기를 무조건 추종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 봐야 한다. 환경재단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환경 위기 시작은 9시 9분이었다.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위기점을 시계처럼 쉽게 나타낸 것이다. 0-3시는 양호, 3-6시는 불안, 6-9시는 심각, 9-12시는 위험 수준을 의미한다.

그런데 실제 현실은 어떤가. 불과 몇 달 전 우리는 중국발 펄펄라스티, 페비닐 대란을 경험하였다.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의식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와 팔리성만 추구하며 쓰레기를 양산하는 세태에

대한 반성이 이어졌지만, 이후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온실 가스 절감을 위한 노력도 민간·공공 산업 부문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생활 현장에서는 뒤따르지 않고 있다. 여름철 적정 냉방 온도를 홍보하지만 성과는 미미하고, 문 열고 영열하는 점포에 대한 단속도 상인과 행인의 원성을 살 뿐이다. 환경 재앙의 심각성을 알리는 알람은 현재도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는데, 경각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분명 머지않아 더 큰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폭염의 고통은 우리의 자세를 되돌아볼 것을 요구한다.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불편함과 귀찮음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폭염은 곧 지나가겠지만,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가속화되는 생태계 파괴는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올 테니 말이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견된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붉은 바다 거북의 사체 뱃속에 페비닐이 가득했다는 보도가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기 고



황 옥 주
수필가

참 한심스러운 세상이다. 군사부일체라던 말은 전설 같은 얘기 속에 묻혀버리고 어쩌다가 교사들의 가르침을 두고 비판 아닌 비판으로 매질만 해야 되는가? 빈해도 너무 변해버렸다. 교육자로서의 인성을 살았던 일을 생각하면 '교육자'라는 어휘에서 새삼 자괴감을 느낀다.

스승의 날을 맞아 어느 현지 교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스승의 날'을 폐지해달라는 글을 올렸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씁쓸히 웃었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교사들의 방학을 두고 일어난 설악설레 때문이다. 유급으로 쉬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식의 논리에 어안이 병병했다.

안톤 슈나이 오늘에 살아계셨다면, 우리나라의 기막힌 교육 현장 실태를 알았다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속에 또

교사들에게도 희망을

하나의 슬픈 얘기를 적었을 것이다. 안톤 슈나이 에세이 속에는 우수(憂愁)와 비애가 깔려있다. 신념과 철학, 그리고 서정이 녹아있다. 그래서 감동을 준다.

교육자가 노동자인가?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방은 교사들의 집일 가능성이 많다.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해야 하는 직업이 교사다. 연구를 안 해도 꾸중할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교사들은 꾸준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다. 누가 시켜서 하는 분발이 아니다. 가르쳐야 할 대상 때문이다. 그제 교사의 양심이다. 하나라도 더, 한 가지라도 더 깨우쳐 주고 싶은 게 교육자로서의 양심이고 제자 사랑이다. 노동자는 시간으로 다룬다. 시간만으로 때울 수 없는 것이 가르치는 일이다.

'스승의 날'은 처음 매월 5월 26일을 '은사의 날'로 정했다가 세종대왕의 탄생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바꿨다. 유신 체제에서 한 때 중단되기도 했으나 정부가 내세운 스승의 날이다.

그런데 금년에는 학생 대표가 아니면

감사의 카네이션 한 송이도 전해서는 안 된다 했다. 잘못을 없애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하나도 없다. 양심을 속이고 못된 짓 많이 하는 사람 중에는 정치가나 지도층 인사들이 많다. 서민들은 나쁜 짓 한 번 해보고 싶어도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며칠 전 양심적이라는 좋은 이미지의 한 정치인이 목숨을 끊었다. 애듯할 일이요 안타까운 일이다. 전혀 잘못된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닐지 모르나 역시 동정을 받을 만한 정치인이란 생각이 들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그분들에게 적용해야 어울릴 법을 쫓 한 송이, 음료수 캔 하나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

학생들이야 어찌됐든 꾸준한 번 했다 가는 고발당하는 사태를 누가 만들었는가? 학생들의 인권은 소중하고 가르쳐야 할 교사들은 아무런 교권도 주장할 수 없는 세상을 어찌 보아야 할까? 꾸중과 벌이 좋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교사와 학부모간의 다툼을 해결하고자 한 보훈이

대한민국 말고 또 있다는 것을 과문한 나는 듣지도 읽지도 못했다.

물론 모든 교사가 다 칭찬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며 잘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선생'이 있고 '스승'이 계신 것이다. 지식을 가르치기는 쉬어오 인생의 길을 깨우쳐주는 쉽지 않다. 설명 '스승'이 되고자 한들 사회적 공감 없이는 불가능하다. 최근 어느 칼럼을 보면서 생각했다. "부모는 멀리 보라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고 한다. 부모는 함께 가라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고 한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지만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는다." 어느 공익광고에 밝힌 부모와 학부모의 차이로 한다. 나는 부모인가 학부모인가? 생각 깊은 부모는 교사를 노동자로 보지 않는다.

교사를 두고 국가도 사회도 '선생'이 거부다 '스승'이 되기를 바라며 어깨를 도닥여 주면 좋겠다. 교사들도 그 길을 택했음을 긍지로 여기고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 각오와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社 說

교사들이 제자들을 오랫동안 '아니 이럴 수가'

광주의 한 여고에서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고생들이 180여 명이 이라며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로 10여 명이 나 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교장에게 신고를 한 뒤 자체 조사를 한 결과 피해 학생이 180여 명이 이르자 광주시교육청에 사건을 신고했으며, 이후 관할 경찰의 협조 아래 시교육청의 전수조사가 이뤄졌다.

전수조사는 광주시교육청이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의뢰해 여성수사관 5명, 전문상담사 20명 등이 참여해 전교생 860여 명을 대상으로 1대 1 면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교육청 조사에서 교사들이 장기간에 걸쳐 성희롱 또는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거나 부분적인 신체 접촉을 했다고 신고했다.

시교육청 조사 결과 이 학교에서 이 같은 성희롱·성추행을 저지른 교사는 현재까지 11명으로 드러났다. 이 숫자는 "저 선생님에게 내가 직접 당했다"라는 직접

피해자 진술로 확인된 교사에 한정된 것이다. 현재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들은 3학년애 집중돼 있으며, 1~2학년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해 왔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시교육청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식적인 감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교사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구체적인 피해 규모나 상황을 파악해 관련 교사들에 대한 분리 조치를 비롯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학교에서는 3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가해 교사는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조치를 당했을 뿐이다. 따라서 당시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다더라면 이번 성 비위 사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 교사들이 성희롱·성추행 가해자로 최종 확인되면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다. 경찰도 철저히 수사해 이들의 죄상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회 폭염 재난 인정 법안 언제까지 미룰 건가

찌는 듯한 폭염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대책은 예방 수준에 머무른 뿐 실질적 지원이나 피해 보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폭염을 재난으로 인정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수년째 낫잠을 자고 있기 때문

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 재난에 태풍·홍수·황사 등은 포함돼 있지만 폭염은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부터 자연 재난에 폭염을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손금주(무소속) 의원, 이명수(정병국·윤영석·윤재욱(이상 자유한국당)) 등이 폭염을 재난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하지만 올해 폭염으로 온열 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가축·어류 폐사 등 피해가 늘어나면서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

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 광주·전남의 지자체들은 피해 현황 파악과 구급대 운영, 그늘막 설치, 도로·축사에 물 뿌리기 등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취약 계층 지원이나 피해 보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은 이제 일시적인 기후 변화로 인한 개인적인 피해가 아닌 국가가 관리해야 할 자연 재난으로 인정해야 한다. 인명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분야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폭염을 특별 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책을 챙겨 달라"고 당부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회는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주거 빈곤층과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 누진세 면제 등 실질적 지원과 함께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폭염의 예방부터 피해 관리, 복구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재테크 전문가들이 신입 사원들에게 조언하는 제1 원칙은 가능하면 차를 사지 말라는 것이다. 구입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유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배기량 2000cc의 자동차 한 대를 유지하는 비용은 40평형대 아파트 관리 비용보다 더 든다.

재테크의 기본 원칙은 수익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것이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수입에 비해 과

다한 대출로 자동차를 1인당 개인 소득은 산다고 비판했다.

자동차는 아직도 사치재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수입자의 성장세를 보면 사치재란 말이 무색해진다. 자동차 신조어인 '하차감'이란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하차감은 차에서 내릴 때 타인의 부러운 시선을 통해 느끼는 자기 만족감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인인 느끼는 게 아니고 남들이 부러운 시선으로 쳐다봐 줄 때 완성된다고 한다.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면 승차감을 기준으로 선택할 텐데 허세를 부리고 싶은 마음에 하차감을 기준으로 수입차를 선택하고 있다. 국내 수입차 시장의 성장률은 연

간 30%를 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14만 대가 팔려 점유율이 15%를 돌파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광주·전남 소비행태 특징 및 시사점'이란 자료를 보니 광주 시민들은 하차감으로 자동차를 선택하는 경향이 유독 강했다. 놀랍게도 광주는 신규 등록 승용차의 50%가 외제차였다. 전체 자동차에서 소형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10.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의 5분의 1이 넘는 21.6%가 자동차 구입

과 유지 비용이었다. 1인당 개인 소득은 가장 적는데 소비 성향은 전국 최고 수준이었

다. 즉 광주 사람들은 1인당 연간 1658만 원을 벌어 1537만 원을 썼다. 가져본 소득(출수 있는 돈)에서 실제 소비한 돈의 비중인 '소비 성향'이 93%로 전국 평균(88%)을 훨씬 넘어섰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광주가 상대적으로 주거 비용이 덜 들고 가계 부채 비중이 적기 때문에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소비를 뒷받침할 소득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소비 도시 광주'라는 말이 빈 말이 아닌 것이다. /정필수 전남본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663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64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220-0642	220-0697	체육부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